

이 사람

한국 온 키쇼 마흐부바니 리관유 대학원장

## ‘아시아 르네상스’ 이룰 힘은 ‘연대’

“21세기 아시아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시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.”

싱가포르 국립대 ‘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’ 키쇼 마흐부바니 원장은 기자를 만나자마자 아시아 연대를 강조했다. 그는 “많은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듯이 21세기에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”이라며 “그런데도 아시아 각국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 아시아 바깥 나라들과 사귀는 데만 열심이지 정작 아시아 이웃나라와의 관계는 등한시키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아시아가 아직 19세기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. 유럽 등 외부세계가 아시아라는 버스를 운전하고 아시아인은 단지 승객에 머물던 시절의 사고

**운전수는 아시아인들, 유럽은 승객일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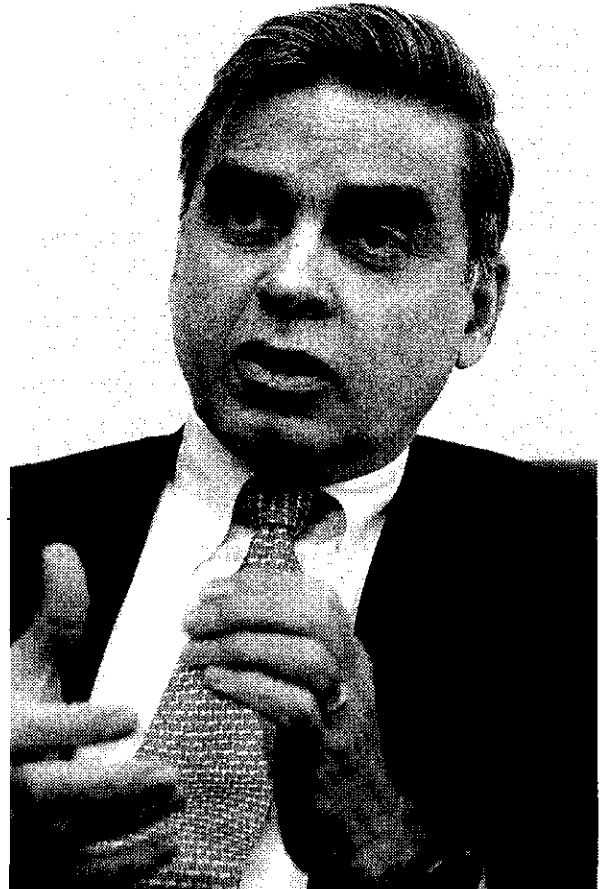
**상호 이해 위해선 일본 잘못 일깨워야**

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. “21세기는 1천년 전 찬란히 꽃피웠던 아시아 문화가 다시 르네상스를 맞는 시대”라며 “아시아인들이 거기에 걸맞은 문화적 자존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마흐부바니 원장은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22일 7박8일 일정으로 방한해 학계 인사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.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은 아시아 네트워크의 축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문을 열었으며, 그가 초대 원장을 맡고 있다. 아시아 각국 유학생 중 한국 학생은 아직 한두명에 불과하다고 한다.

아시아 연대론자답게 그는 아직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로 아시아가 남아있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다. “유럽은 과거 수백년 서로 싸웠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서로 합심해 지금은 전쟁 가능성이 0%인 가장 안정된 사회가 됐다. 그러나 아시아는 아직도 불안하다. 슬픈 일이다.”

그는 “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상호이해를 넓히는 게 관건”이라고 했다. 그는 “이를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은 국민들에게 제국주의시대의 잘못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

마흐부바니 원장은 최근 <프로스펙트 매거진>과 <포린 폴리시>가 선정한 세계 100대 공공정책학 지성인에 포함됐다. 1985년부터 두차례 유엔주재 대사, 2001년도 유엔안보리 의장을 역임해 국제외교에도 밝다. 24일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다. “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이 전부가 아니다. 동북아 국가들이 동남아 등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도 시야를 넓혀야 한다”는 말에서는 국제적인 안목이 엿보였다. “인도는 떠오르는 강국일 뿐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등은 정치사회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달성했다”며 “인종과 종교가 복잡해 유럽의 발칸반도로 불렸던 이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동북아 국가들이 배울 것이 많다”고 했다.

글 김종철 논설위원 philkim@hani.co.kr

사진 김정호 기자 hyopd@hani.co.kr